

AUTHOR 홍치모

TITLE The Reformation

IN 개혁주의

22호 (7, 1967): 31-33.

The Reformation

by Owen Chadwick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Grand Rapids 1965 Michigan

출치모

영국의 Cambridge 대학 교회사 교수로 있는 Owen Chadwick씨가 쓴 이 저서는 The Pelican History of The Church의 제3권으로 1964년 출판된 것을 미국의 어드만 출판사에서 1965년 단행본으로 다시 간행하였다. 총 463페이지에 달하는 이 단행본을 삼부로 편성되어 있다. 목차를 볼 것 같으면 제1부는 항의(The Protest)라고 되어 있어 주로 종교개혁운동의 원인을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일반 역사가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또한 시인하고 있는 것과 같이 종교개혁운동의 직접적인 원인을 루터의 회심(回心)에서 일어난 신앙과 로마 카톨릭 교회의 속죄부(贖罪符) 폐기에 대한 정면 충돌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것은 없으나 종교개혁운동 당시의 정신적 분위기와 정치적 상황도 개혁운동의 간접적인 뒷받침이 되어 주었다는 것을 아울러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그의 사관(史觀)이 폭넓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새로운 국민 국가의 태두로 말미암아 세속 군주들의 세력이 날로 팽창해 가고 있는 반면에 법왕의 권위와 세력은 위축되어 갔다는 사실과 아울러 둔대부흥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새로운 학문의 발달로 교육의 개방은 민중들을 계몽시키고 자정시키는데 적지않은 공헌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이와같은 배경을 강조한다고 보다는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가 어떠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루터의 개혁운동이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데 불과한 것이었다. 법왕청은 승려들의 부패(특히 축첩 같은 것)를 막을 힘도 없었거니와 오히려 그와 같은 사실을 공공연하게 방관하고 있던 형편이었다.

Owen교수는 루터나 칼빈을 전기식(傳記式)이 아니고 사건과 관련시켜서 토막 토막 잘라 설명하면서도 그들의 생애와 업적을 압축 시켜가면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 그의 놀라운 솜씨를 엿볼 수가 있다.

제1부에서 몇 가지 결점을 지적할 것 같으면 첫째로 Erasmus의 출생연대를 A. D. 1466년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이다. Erasmus 연구가 대가로 알려진 P. Smith 교수나 P. Mestwerdt교수 그리고 A. Hyma 교수 등은 그의 출생연대를 1469년으로 간주하고 있다. 후자의 견해는 새로운 고증을 통해서 일어난 확증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Erasmus 출생 당시의 복구 문에 부흥 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하고 있는 점이다. Erasmus의 소년시절의 복귀(화란과 독일)는 마치 야만시대를 미쳐 벗어나지 못한 시대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Owen 교수의 큰 실수요, 무지로 돌릴 수밖에 없다. 어쩌면 같은 Cambridge 대학에 있는 Margaret Mann Phillips 여사의 견해와 꼭 같은지! (註1)

그것은 14세기말 화란을 중심으로 발생한 공동생활의 형태단의 활동과 그들이 종교개혁운동에 미친 영향을 도의시하고 있는 것이다. Erasmus의 선생이었던 Heguis를 위시하여 Agricola, Gansfort 등이 복구에서 일어났던 Christian Renaissance 또는 Biblical Humanism 운동의 선구자들이었다는 것은 일관하지 않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필자는 Owen 교수의 노고를 칭하할 점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첫째

1부 6절의 목차가 표시해 주고 있는 바와 같이 "종교개혁의 급진주의자들"(The Radical of the Reformation)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재세례파"(The Anabaptists)와 그 인파들의 역사적 기원과 그 성격을 잘 묘사해 주고 있다. 이들은 R. H. Bainton 교수가 언급한 바와 같이 소위 종교개혁운동의 "좌파들"(Left wings)로서 그들의 운동은 다양적이었다. 극단적 경건주의의 창시자로서 Menno Simons가 있었는가 하면 천년왕국사상과 원시공산주의, 육상을 한 몸이 지닌채 독일 농민전쟁을 지도했던 Thomas Münzer,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했던 Fausto Sozzini등이다. Sozzini의 이름을 따라서 그의 추종자들을 Socinian이라고 불렀고 훨씬 후세에 이르러서 Unitarian(일신주의자)들이라고 불렀다.

A. D. 1605년 Sozzini가 사망한 후에 그제 의자들은 "라코비안 신조"(Rakovian Catechism)를 작성하여 영국왕 제임스 1세에게 바쳤으나 A. D. 1652년 영국의회에서는 그것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불태워 버렸다(P. P. 201~202).

다음 제2부는 반종교개혁운동(Counter Reformation)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루터나 칼빈의 개혁운동의 자극을 받아 로마 카톨릭 교회내에서 발생한 개혁운동인 것이다.

이 운동은 때 마칠 발생하고 있었던 지리상의 발전(신대륙의 발견)에 편승하여 세계전도(World-mission)의 기치를 구고자 먼저 들었다는 것은 신교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엄격히 말해서 전도자들이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정복자들(The Conquestors)이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Mexico를 위시해서 Peru와 남미 제국은 로마 교회의 세력하에 들어 가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여기서 Owen교수가 특이하게 취급하고 있는 A. D. 1453년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Constantinoble이 함락한 후 Balkan반

도에 산재하여 있던 동로마 교회(회람 정교회라고도 함)가 오스만 터키 제국의 지배하에서 어떻게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갔는가? 반면에 서방교회 즉 당시 로마 법왕이었던 Leo 10세는 1518년 3월 14일 동로마 제국의 영토를 회복해 줄 것을 서방국가의 군주들에게 호소하였으나 별로 신통한 결과를 얻지 못했고 법왕 Pius 5세때에 간신히 스페인의 함대가 Leponto해전에서 터키의 해군의 지중해 진출을 저지 시킴으로써 그 체면을 간신히 유지했을 뿐이었다는 사실을 요령있게 설명해 주고 있다(P. 349)

사실 Pius 5세가 출현하기 전의 법왕 Leo 10세는 제 2의 십자군을 조직하여 동원시키려는 거대한 목적을 성취시키려고 독일왕 Karl 5세를 위시해서 영방(領邦)군주들의 비위를 상할까 염려된 나머지 Luther의 개혁 운동에 대해서 파감한 조처를 내리지 못한 것도 일고(一考) 할만 한 일이 아닐까?

동방교회가 터키의 지배하에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Sultan(터키황제)에게 세금을 납부한 데 있었고 더욱이 Lucaris (1572~1638) 같은 사람은 Luther 파의 인물들과 자주 접촉한 일도 있으며, 그가 서방교회의 사상을 동방교회에다 소개 시키려다가 Sultan(터키황제)에게 미움을 받아 교살(絞殺) 당한 후 보스포로스해협에 던진 바 된 사실은 동방교회가 당한 수난의 비극의 한 토막을 말해 주는 것이다.

끝으로 Owen 교수는 제 3부에서 개혁운동과 교회생활을 다루고 있는데 주로 16, 17세기 영국의 교회생활을 중심으로 당시의 실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가 영국인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시야를 좁히고 있는 것이 딱 유감스럽다. 독일과 화란의 교회생활도 좀 더 깊이 그리고 폭을 넓혀서 소개하는 것이 보다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이외에도 Owen교수는 Calvin이 [아다나서우스]의 교리를

불찬성 했다든가(P. 147), 또는 Servetus가 죽을때까지 삼위일체 교리를 신봉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註II〉 Margaret Mann Philbips, Erasmus and the Northern Renaissance London, 1964. Chapter 1 참조

S. F. C. 페이지

전국 학생신앙운동원들에게



김 남 식

전국의 신앙 동지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반도 남단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이제 해를 거듭하여 20년의 성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의 길고도 짧은 세월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 S. F. C. 가 오늘까지 나아오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애로가 많았으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난제를 타개하고 나갈 수 있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순교자의 고향인 거창에서 모인 제24회 동기 수양회 때 우리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란처"이심을 확신하고 승리와 기쁨에 찬 얼굴로 헤어질지 벌써 반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국 S. F. C. 와 각 지방 S. F. C. 의 활동상을 알 지면들 통해 전국의 운동원들에게 보고 드립니다.

전국 S. F. C. 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2차의 정기 위원회를 가졌습니다. 2월 23~24일에 대구 서문로교회에서 모였고, 또 6월 3~4일에 서울중앙교회에서 모여서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을 하고 S. F. C. 를 위한 제반 사항을 의논하였습니다.

또 중단되었던 기관지 "전국학신"을 속간시켜 매월 1회씩 발간토록 하고 있

으며 지금까지 3번 출판하였습니다. 성년을 맞은 S. F. C. 의 20년 역사를 편찬하기로 하고 지금 원고란 집필하고 있으니 불필 출판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S. F. C. 20년사가 우리 교단의 측면사가 될 줄로 압니다. 이 일을 위한 운동원들의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전국 S. F. C. 에서는 앞으로의 사업 계획으로 오는 8월 16일 밤~18일 밤에 서울에서 전국 대학생 수양회를 "그 나라와 조국을 위하여"라는 표제로 가사기도 하였습니다. 대학생들과 위원들이 모여서 진지하게 토론하려고 합니다.

또 제25회 동기 수양회를 1968년 1월 11일 밤~16일 밤에 부산 삼일교회에서 모이기로 하고 지금 준비중입니다.

그외에도 S. F. C. 의 자립책을 위하여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의 활동을 보면, 부산지방은 금년에 들어 새로운 활기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S. F. C. 재인식을 위하여 지방위원을 위시하여 모든 운동원들이 순회 집회에 참석하여 많은 성과를 얻었고 오는 8월 1일~5일에 가덕도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란 표제로 하기 수양회를 가질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부산대학교, 고려신학교, 부산이교, 부산상교, S. F. C. 를

조직하였고 부산건여상, 함도교 S. F. C. 가 이달안에 조직되고, 부산교, 부산남교, 경남여교, 경남상교, 남여상교, 해동교, 동아교, S. F. C. 가 강화되어 앞으로 학원 복음화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경북지방에서는 연합 성가단을 조직하여 매월 순회하고 있으며 발표회를 가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배구대회와 탁구대회를 개최하였고 7월 24일부터는 교유대회를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서울지방은 대학생 연합회가 조직되어 매월 신앙강좌를 가져서 대학생들의 신앙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고 전국

대학생 협의회에 적극 참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도 하기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활기있는 운동을 위해 교전분투하고 있습니다. 경남, 전라, 경북지방도 이제 자기 사업 준비에 분망하고 앞으로 자못 기대가 큼니다.

사랑하는 신앙 동지 여러분! "교회와 부흥은 S. F. C. 의 부흥에서"라는 표어를 가지고 일해 봅시다. 비록 우리의 위치가 미미하고 어렵다고 해도, 보다 나은 내일이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빌며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 내의 Unitarian 교파

Unitarian교파는 한때 하나님의 부권과 인간의 형제됨과 Boston의 이웃 됨이란 신념을 갖고 있었던 New England의 일파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이 달라졌다. 시카고의 여론조사본부가 조사한 Unitarian Universalist Association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 교파는 비유적으로 따지면 미국내의 어떠한 타 교파보다 많은 대학출신자와 부유층인물들을 갖고있으며 또 이들 교인들의 3분의2가 그들이 오랫동안 신앙을 유지해오던 New England를 떠나 타 지방에 산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보고서는 장년신도들의 63%가 연간 일반 이상의 수입 소득자들이며, 84%가 대학 출신자라고 지적했다. 이들 교도들의 대부분은 타종교로부터 개종한 자들로써 60%의 비율을 차지하여 28%만이 무종교에서 이 종파로 들어온 자들이라고 한다.

이 교파는 신앙과 도덕에 관해 특별한 교훈을 제시할만 한 일정한 교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 이들 신자들의 실제 신념들은 시카고의 보고서가 처음

으로 밝혀졌다. 이들중의 대부분이 기독교의 교의를 부정하는 것 같다. 즉 하나님을 초자연적인 분이라고 믿는자가 3%이하이고 90%가 사후의 생명의 존재를 믿지 않으며 64%가 기도를 거의 하지 않거나 전혀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 특별히 그들은 미혼여성이 낙태수술을 받는 것을 시인하며 (72%) 80%가 결혼전의 성생활을 허용하며, 70%가 교회들이 종족의 투쟁에 끼여드는 일을 대단히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 비록 69%가 월남에서의 전투의 비례증감을 반대하지만 오직 20%가 미국이 동남아에서 그들의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Unitarian교파의 회장인 Pana Mclean Greeley씨는 자기교회가 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진전된 사회단체이나 일반대중의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보고서가 확증해 준다고 말했다. 이교파는 최근 10년동안에 두배로 교인수가 늘어나 276,944명이 되었으며 이들 교회지도자들은 1980년에는 5십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